

# '남원 예가람길에서 놀아보세'

###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시민 주도형 행사 진행 매일 첫째·셋째주 토요일 상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된 남원시 문화예술의거리인 예가람길에서는 매일 첫째주 토요일에는 "골목마켓"이, 셋째주 토요일에는 "문화예술페스티벌" 등 예술시장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과거 예가람길운영위원회 주도적 사업 성향에서 벗어나 예가람길 상가 및 주민이 주체가 되어 판매자 모집, 장터구상, 공연기획, 토론회 등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예술시장, 아나바다장터, 길거리 공연, 예가람길 예술시장 전용 상품권 제작 및 배포 이벤트 진행, 게릴라 버스킹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예술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예술장터 참여 범위도 지난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참여금지 품목(종교, 의학 등)을 지정했

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핸드메이드(손수 직접 제작한 물품)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물품 방지, 위생관련 점검을 위해 사전 신청 접수 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사전 판매 물품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매회 행사가 끝나는 시점 판매자들 대상 '골목 토론' 진행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피돌아보고 발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다.

예술시장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곡성, 정읍)에서도 공연등 참여 희망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예가람길 버스킹 공연단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막했던 구도심이 어느덧 노란 빛 파라솔에 물들여가고 미술작품 전시, 장터, 짧은 버스킹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는 문화예술이 어우르는 예가람길의 대



남원 예가람길 문화예술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표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아니라 예가람길은 매주 월요일 저녁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버스킹을 하는 소규모 공연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더욱더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매일 첫째주토요일 "골목마켓"은 오후12시부터 오후5시까지, 셋째주토요일 "문화예술페스티벌"은 오후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김희식 황토대표, 박동화연극상 대상 선정

박동화연극상운영위원회 김희식 황토퍼포먼스대표(사진)를 제19회 박동화연극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8일 오전 11시 전주체련공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김희식 수상자는 1970년대 후반 극단 예



인 창단 시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연극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북연극계의 산증인이다. 특히 1982년 황토퍼포먼스대표로 창단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 운영·제작·기획은 물론 배우로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그는 (사)한국연극협회전북지회 이사, (사)한국연극배우협회전북지회 부회장, 전주시 예총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전북연극상 대상, 2015년 한국연극협회 자랑스러운 연극인상-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 유휴열 화백, 금보성아트센터 한국작가상 수상

유휴열 화백(사진)이 '금보성아트센터 한국작가상'을 수상 국내미술계 작가공모 최고 수준인 상금 1원을 부상으로 받는다. 이번 상은 국내외 60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 및 추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이는 최근 내대미술 중심이 주로 중진작가 이하의 젊은 작가들에게만 편중됐던 경향 때문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심사는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가들 대상으로 모두 6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3명씩 복수 추천으로 진행했으며, 유 화백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심사위원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한 부분은 유휴열 작가가 비록 지방에서 활동하지만 쉬지 않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지켜왔다는 점과 다양한 실험과 재료로 한국미의 흥에 관한 세계를 공통 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는 심사평을 내놓았다. /정해은 기자

유 화백은 "그동안 한국의 정신적 원형을 나뉠의 조형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인의 감성을 통해 재해석할 수 있는 진솔한 미학적 탐론 연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민예술촌은 경안동 철길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설 공연을 실시한다.

## '보고 듣고 즐기는 철길투어'

### 군산시민예술촌, 경안동 철길마을을 매주 토 상설공연

군산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경안동 철길마을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경안동 철길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설공연을 실시한다.

지난 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오후 2시부터 시민예술촌 소속 상설공연단이 버스킹 및 댄스, 근대서커스

(저글링), 철길퍼포먼스(연극) 등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군산철길마을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길거리 문화공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철길마을에서 힐링과 추억을 교감하는 계기를 제공해 군산을 널리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문정근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춤극 '토끼야, 너 어디 가니?' 오늘 오후 7시30분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판소리춤극 '토끼야, 너 어디 가니?'가 17일 오후 7시 30분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공연된다.

이는 '춘향을 따라 걷다'와 '심청이 울었다'에 이은 2016년 신작으로 전통적인 판소리 수궁가의 이야기구조 위에 풍요 산토끼(토끼의 행방을 묻는 가사로 개사)를 삽입, 인간세상의 대립과 갈등을 우화적으로 그려낸다.

작품은 기존의 수궁가 주제외적인 '별주부의 충성' 혹은 '토끼의 지혜'를 달리 해석해 이번 공연에는 토끼의 간을 두고 벌이는 용왕, 토끼, 자라, 물고기의 모습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투영한다.

마지막 무대 여덟째 춤판 중 수궁에서 자신의 간을 지키며 탈출하는 토끼가 노래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중강중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절음마 뛰고 말배우면 사람들은 내게 묻지.

산 고개 넘었더니 또 산 고개. 그 산 고개 넘었더니 또 산 고개. 그 고개 넘느라고 개고생 아니 토끼고생. 인생살이 고행 길이라 말하지!

사람살이 힘이 들고 고단할 때 저 하늘을 쳐다봐! 저기, 저기 저 달 속 낙 보고 내 이야기 떠올리며 웃어봐.

세상살이 힘이 들고 고단해도 살아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 사는 동안 쉬운 일은 하나 없지. 그러나 그게 세상사는 재미.

이제 더 이상 제발 묻지 마! 토끼야 너 어디 가니? 강중강중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국립민속국악원은 관계자는 "사실과 사실사이를 거침없이 채워가는 무용수들의 아무진 춤사위 위에 소리꾼과 타악기의 앙상블이 더해져 여타의 춤극과는 차별화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익산이 낳은 '국악소녀' 우수현 19일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 도전

3년전 '심청가' 완창 발표를 했던 익산 국악소녀 우수현(16세·이일여중)이 오는 19일 오후 2시경술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무려 4시간이 걸릴 판소리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에 도전한다.

(사)한국국악협회 익산지부가 주최하고 익산국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정진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연 1부는 임청현, 2부는 손주현 고수가 함께 한다.

이날 공연 관람자들은 무료입장, 간식 및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수현은 초등 1학년때 국악에 입문했는데 익산 대표 명창 임화영 선생이 아끼는 제자로 밝은 성품과 타고난 기, 끊임없는 노력으로 판소리 유망주가 됐다.

우수현은 지난 2009년 군산전국판소리대회 우수상을 시작으로 완주판소리대회, 추남전국판소리대회, 서울전국판소리대회, 진도남도민요전국대회 등에서 대상을 받았고 청주 박팔괘 판소리대회에서 장원에 오르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7일>

<p><b>▷쥐띠</b> 4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60년생: 욕심을 부리면 실재가 따른다.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라. 84년생: 동기인과 시비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라.</p>	<p><b>▷소띠</b>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마음을 잘 디스해야 하겠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될 수 있으니 추진하라.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봐라.</p>	<p><b>▷토끼띠</b>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자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하라.</p>
<p><b>▷용띠</b>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 앞을 내다보아야 할 때. 64년생: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라.</p>	<p><b>▷뱀띠</b> 53년생: 결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다.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b>▷말띠</b>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한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b>▷양띠</b> 55년생: 베풀던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 67년생: 지나친 과대성은 부작용을 불러오니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진행하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 91년생: 때로는 결순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p>
<p><b>▷원숭이띠</b>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한다.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p>	<p><b>▷닭띠</b>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히게 한다. 93년생: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p>	<p><b>▷개띠</b> 46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를 갖는 것은 흥하니 때를 기다려라.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0년생: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82년생: 몸애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돼지띠</b>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8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p>